

위내시경 정상인데 소화 안된다? 위장도 '교정' 필요



김영돈
광주태영명가한의원
상무점 원장

내장기 추나요법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치며 에너지가 된다. 소화기는 인체의 엔진과도 같아서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신 컨디션이 저하되고 무기력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소화불량의 원인은 다양하다. 과식, 자극적인 음식 섭취, 음주 등 일시적인 원인부터 위궤양, 위암 같은 기질적인 질환까지 폭이 넓다. 문제는 병원에서 위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를 받아봐도 “깨끗하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염증 외 장 운동 저하때도 증상 발생
약 효과 일시적·재발땐 치료 고려를
복부의 뭉친 근막 이완·척추 정렬 등

듣는데 환자는 계속 아픈 경우다. 이에 김영돈 광주 태영명가한의원 상무점 원장을 통해 '내장기 추나요법'과 치료 효과 등을 알아본다.
◇위장 잘 움직이지 못하면 약물 한계
흔히 '신경성 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받는 이 단계가 환자에게는 가장 답답한 시기다. 보통 이런 경우 소화제나 위산억제제 등을 처방받는다. 약을 먹으면 속이 좀 편해지는 듯하다가도, 약을 끊거나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은 여지없이 재발한다. 왜 그럴까? 이는 해당 질환이 위장 점막의 염증(화학적 문제)보다는 위장 자체의 운동성 저하(물리적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질병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여러 방법들이 모두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빠른 길은 존재한다. 화학적 질병은 화학적으로 치료하고 물리적 질병은 물리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장에 염증이든 궤양이 있다면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위장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못해 생긴 체기나 더부룩함이라면,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장기 추나요법'이다.
◇거북목·라운드 숄더 근본 원인이기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위장이나 간, 소장 같은 장기들이 뱃속에 동동 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기들은 척추와 골반에 연결된 얇은 막(근막)과 인대에 의해 매달려 있다. 우리가 숨을 쉬거나 움직일 때 장기들도 고유의 움직임을 가지며 몸통대야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척추가 틀어지면서

장기를 감싸는 근막이 팽팽하게 긴장된다. 마치 딱 긴 옷을 입은 것처럼 위장이 조여들어 꼼짝 못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소화제를 넣어도 위장이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화기의 기능 저하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2차적으로 심각한 체형 불균형을 야기한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복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웅크리게 된다. 이러한 자세가 고착화되면 등뼈가 굽어지는 '거북목'과 어깨가 안으로 말리는 '라운드 숄더'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즉, 잘 낫지 않는 어깨 통증과 목 통증을 근본 원인이 실상은 뱃속 위장의 굳어짐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내장기 추나요법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한의사가 손으로 복부의 뭉친 근막을 이완시키고, 위장의 운동성을 제한하는 척추의 부정렬을 교정해 장기가 제 스스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치료다.
실제로 만성 소화불량 환자들의 등(흉추)을 살펴보면 위장 신경이 나오는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곳을 교정하고 복부의 압력을 풀어주면 딱 막혀 있던 체기가 내려가고 명치 끝의 답답함이 해소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곤 한다.
◇장기의 구조적 문제 확인해봐야
오랜 기간 소화제를 달고 살았는데도 차도가 없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나의 위장병이 단순히 위산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이 굳어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과적인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약으로만 다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원인 모를 복통,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더불어 만성적인 어깨 결림이나 체형 변화로 고생하고 있다면 척추와 장기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해 보고 내장기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한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보길 권한다. /정리=기수희 기자

“변화·혁신...강한 추진력으로 병원 이끌겠다”

최남규 제26대 조선대학교병원장 취임
임기 2년...부원장엔 김동휘 교수 임명



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취임 최남규 병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성원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 강한 추진력과 실행력으로 병원을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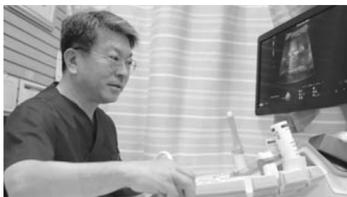
임기는 2년이다. 이와 함께 조선대병원 진료부장, 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정형의과 김동휘 교수가 부원장에 임명돼 최남규 병원장과 함께 공식 업무 시작을 알렸다. 주요 보직자는 ▲의생명연구원장 안과 고재웅 교수 ▲기획조정실장 신장내과 신병철 교수 ▲진료부장 류마티스내과 김윤성 교수 ▲교육수련부장 외과 김유석 교수 ▲대외협력실장 마취통증의학과 이현영 교수 ▲의료질관리실장 피부과 나찬호 교수 ▲의료정보실장 성형외과 최우영 교수 등이다. /기수희 기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민정준 제11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김윤하 전남대학교병원 교수 정년퇴임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
33년간 분만대 지켜...“로컬서 진료”



120건이었으나, 지금은 60건으로 반토막이 났다”며 “멀리 섬마을이나 산간 지역에서 헬기를 타고 우리 센터로 오는 고위험 산모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산과(Obstetrics)는 의료진의 체력적·정신적 소모가 극심하고 의료사고 위험도 높아 전공의 기피 1순위로 꼽히지만, 아이의 첫 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그간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마법 같은 경험이 나를 30년 넘게 이 자리에 묶어뒀다”며 “이것이 바로 지역의 필수 중증 의료 시스템이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초저출산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라는 사회적 화두 앞에 국가를 향해 빼아픈 조언도 남겼다.

그는 “지난해 울산에서 생후 5일 된 아기가 뇌손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병원이 16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현장의 의료진에게 사명감만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필수의료진이 법적·경제적 불안감 없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 즉 ‘국가 책임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분만실 불은 영영 꺼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퇴임 후에도 로컬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수희 기자

김윤하(사진)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30여년간의 긴 여정을 끝으로 정년 교정을 떠났다. 3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을 맡았던 김 교수가 최근 정년퇴임했다. 김 교수는 1993년 청년 의사로 전남대병원에 첫발을 내디딘 후 33년간 병원 분만실의 불을 밝혀왔으며, 고위험 산모들의 ‘마지막 보루’이자 ‘대부’로 불렸다. 그는 “처음 가운을 입었을 땐 분만실이 늘 북적였다. 전공의 시절 우리 병원의 한달 분만 건수는

민정준 제11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이임

“위기 속 더 단단...이젠 현장서 뛰겠다”
주요 보직자에 공로패...감사의 뜻 전해

이어 강호철 진료부원장, 성명석 사무국장, 배흥범 기획조정실장,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등 주요 보직자 16명에 공로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세령 핵의학과장도 직원 대표로 민 병원장에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이후 민 병원장의 가족과 참석자 전원인 단상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민 병원장은 재임 기간 ‘아시아암 진료와 연구 중심’을 목표로 병원의 운영 방향을 재정비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등 국책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임상 진료체제를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며 “병원장 직책에서는 내려오지만, 병원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세계적인 암 연구의 메카이자 미래 의료 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민정준 제11대 화순전남대병원장이 최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3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임식은 병원 직원들과 민 병원장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임 기간 주요 발자취를 담은 헌정 영상 상영, 이임사, 공로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민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의 비상 진료체제를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며 “병원장 직책에서는 내려오지만, 병원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세계적인 암 연구의 메카이자 미래 의료 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